김영록 지사, 반도체 등 지역 현안해결 '잰걸음'

국회의장·민주당 지도부 등에 의대·해상풍력 건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 지원 요청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반도체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에 특화단지가 꼭 조성되도록 지원해달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그는 "상급병원이 없는 전남은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로 1인 당 의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의료비 유출이 연간 70만명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사령탑이 될 국립 의과대학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김 지사는 "해상풍력은 개별 입지에 따른 주민 협의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돼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렵다"며 "일괄 인·허가 처리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국비 사업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과 관련,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 90.4%의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전국 84%의 최대 습지보호구역을 갖고 있어 갯벌 현장 관리기구가 들어설 최적지"라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로 전남이 꼭 선정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한반도 미래 기후의 시작점으로 기후변화 데이터 생성·수집·분석에 유리하다"며 "농업 분야의 신속한 정책 개발과 국가적 연구 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역현안과 2023년도 국고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 난대림을 보유해 기후·식생대별 식물상 변화와 산림의 아열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난대수목원 예타 조기 통과 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에 꼭 필요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선도) 사업 ▲마한 역사문화권 유적 보존 및 정비사업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광양항(여천)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수출용 수산물 스마트 첨단급속 동결시스템 구축 ▲농산업 빅데이터센터(허브) 건립 ▲차세대 그리드센터 구축 ▲산단형 초임계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핵융합 실증로 가열 중성입자빔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등 현안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남이 건의한 현안은 지역 신성장동력과 연관된 핵심사업으로 정책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제도화와 내년 국비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 현안과 국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道,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 'A등급'

관리 차별화·위기 극복 정책 우수…국비 7억 추가 확보

전남도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는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대상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대해 매년 시·도 이행 실적을 평가한 후 S·A·B등급으로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선 강원도, 전북도, 대전시가 S등급을 받았고, 전남을 비롯한 6개 시·도가 A등급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관리 차별화 ▲지역 데이터 활용,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등 환경변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온실가스 규제 등 지역 산업계 이슈 분석의 적절성 ▲지역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시각화 ▲지역사업 만족도 ▲지역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비즈니스센터' 운영의 참신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 279명, 사업화 매출액 815억원의 성과를 낸 것도 한몫 했다.

이는 전남도와 지역혁신기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사업평가단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기업 성과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분석됐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세우고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성장을 유도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金지사,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2년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평가에서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우수 공약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2개 분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선거 기간에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행복 최우선이라는 평소 철학을 담아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비전과 8개 분야, 63개 과제를 제시했다.

약속대상 평가위원들은 평가항목인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 명확성 등 5개 지표를 비롯해 지자체장의 철학 및 비전, 작성 과정의 민주성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김영록 지사는 "민선 8기 공약이 좋은 결과를 받은 만큼 이제는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신정훈, '4월말 地選 실시'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번기 선거운동 인력난 가중"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3일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 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는 4월29일 실시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에 이뤄졌다.

이로 인해 농번기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돼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율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농촌 지역의 경우 채소·과수 등 대부분의 품목 농가는 농번기에 일손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농업 노동 투입시간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2.3%로 연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20여 일의 시간 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지방선거가 실시돼 농촌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사전 확보토록 해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서구의회 윤리특위위원장에 임성화 의원

광주 서구의회가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서구의회는 최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성화(사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광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은 "임 위원장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비롯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서구에서만 6년 넘게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서구의회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을 13명의 서구의원을 대표해 구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승희 기자